

# ‘고곡가 대비 장 · 단기 로드맵’ 작성해야

## 해외자원개발, 사료안정기금 조성으로 농가 충격 완화해야 사료원료 관세 등 제도개선 절실



◀ 지난 12월 10일 한국사료협회 4층 회의실에서 사료협회·축산신문 주최 ‘고곡가 시대의 축산, 사료산업의 생존전략’ 좌담회가 개최됐다.

국제곡물가와 국제유가의 폭등에 따른 국내 사료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사료안정 기금 조성을 비롯한 해외자원개발, 사료비축제 도입 등을 통한 정부, 사료업계 양축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장단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월 10일 한국사료협회와 축산신문사에서 공동주최로 열린 ‘고곡가 시대의 축산·사료산업의 생존전략’ 좌담회에서 토론자들은 이 같이 지적하고 정부 부처간의 협조와 함께 농가, 사료업계 등 전 축산업계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국내 현실에 맞는 사료안정기금 도입돼야

김동환 양돈협회장은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사료가격이 25%나 오른 상황에서는 양돈농가가 더 이상 맘 편하게 양축활동을 할 수 없으며, 사료 값 인상에 대한 부담으로 미리 자포자기하고 야만도주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사료업계

와 정부, 그리고 양축농가 3자가 공동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처럼 사료가격 안정특별기금과 같이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국내 현실에 맞는 사료안정기금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사료로 인한 충격

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호경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전국한우협회장) 역시 사료가격 상승은 FTA보다도 더 근원적인 문제로 농가의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사료안정기금과 더불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농가의 충격을 흡수시켜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미곡중심 보다는 축산과 어우러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축산물과 사료원료 수입으로 인한 관세를 기금으로 조성해 사료가격 안정화에 쓰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사료비축 시스템 도입 필요

정진항 두산백두사료 부사장은 국제곡물가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사료업계에서는 사료 자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대체원료 개발이라든가 인건비를 줄이는 등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현재의 위기상황은 정부, 업계, 농가가 나서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축산업은 생산성 차원뿐만 아니라 식량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을 지적하고 장기적으로 옥수수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석유를 비축하듯이 사료비축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대체사료 개발 및 전환 필요

백인기 중앙대 교수는 곡물가격 상승은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이 처한 현상임을 지적하고, 2015년경에는 현재의 3배에 달하는 3천5백만톤의 옥수수가 전 세계에서 생산될 예정이지만 공급부족과 가격상승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전망하고 대체사료 개발과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해외자원 개발 통한 충격완화 필요

김정호 사료협회장은 구조적인 사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최소한의 물량이라도 해외로부터 직접 조달을 받도록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이 운영하고 있는 사료안정기금의 근본취지는 사료가격을 낮추자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가격이 오를 때 충격을 완화시키는 데 있다며, 지난해 사료가격의 4차례 인상율이 우리는 25%인데 비해 일본은 42%(실제 농민공급가격은 7%), 대만은 35%이 인상되었으나 그 만큼 사료회사의 부담도 컸다며, 현재 사료난의 심각성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업계 모두의 상생을 위해 정부의 신속한 제도제선을 요구했다.

## 업계 모두의 고통분담으로 경쟁력 제고해야

한편 농림부 이상길 축산정책국장은 원가절감을 위한 관세인하라든가, 원료구매자금 지원, 사료원료 공동구매, 수입선 다변화, 생산비 절감방안과 기금조성 문제,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노경상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은 양축가는 생산성 제고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경주해야겠다고, 사료업계는 대체원료 개발에서 경영합리화에 이르기까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고통분담에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크다고 하며, 정부는 사료원료의 무관세화라든지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원가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이와 같은 단기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 추진하는 가운데 동시에 중장기대책을 담은 로드맵을 작성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강조했다. **양돈**